2016년 2월 ITU-T TSAG 국제회의



김형준 TSAG 수석대표, ETRI 센터장
김동호 TTA 통신융합부 부장
이민아 TTA 통신융합부 전임

1. 머리말

ITU-T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전기통신표준화 자문반)은 ITU-T의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ITU-T A시리즈 권고(Recommendation) 등에 정의되어 있는 작업 방법 및 ITU-T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1)과 ITU-T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내외부 협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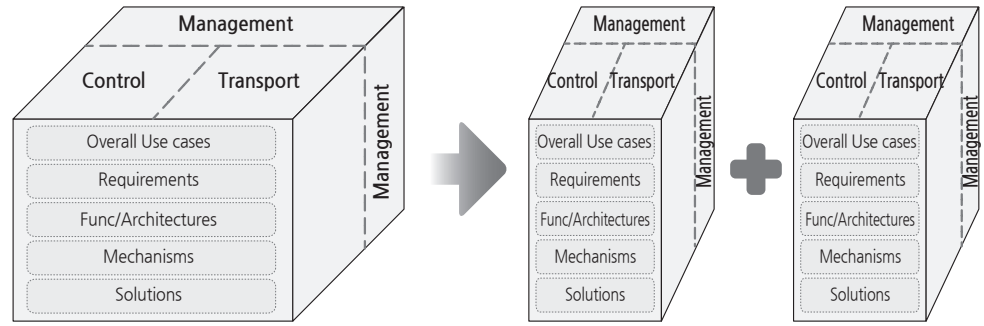
2016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TSAG 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총 36개국 116여 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5명의 국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2016년 10월 25일~11월 3일, 튀니지 함마메트에서 개최 예정인 WTSA-16[1] 준비를 위한 연구반 구조조정 이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외 TSAG 담당 권고 및 신규 라포처 그룹 신설 등을 논의하였다.

2. 주요 회의 내용

2.1 연구반 구조조정

금번 TSAG 회의에서는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가 금년도에 개최되는 만큼 차기 회기(2017년 - 2020년)를 위한 연구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2015년 6월 TSAG 회의에서 연구반 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작업 프로그램 및 연구반 구조조정(Work programme and study group structure)' 라포처 그룹이 신설되었고, 본 라포처 그룹은 2015년 11월 e-meeting을 통해 구조조정 원칙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대면 회의에서는 별도로 원칙을 수립하지 않고 Review Committee[2]에서 수립한 구조조정 원칙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1) 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2) ITU-T Review Committee(RevCom): 2012년 WTSA에서 설립되어 표준화 환경의 변화에 대응키 위한 전략적 차원의 ITU-T의 연구반 구조 및 작업 방법의 검토, 타 표준 개발기구와의 공조 및 협력 메커니즘 검토 등을 담당하는 그룹



※ 출처: Director TSB, "Preparation for WTSA 2016", TSAG, TD 451,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STUDY PERIOD 2013-2016

[그림 1] TSB 제안 연구반 구조조정(안)

High level SG restructuring principles
A: Optimized structure
B: Clear mandates
C: Enhanced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D: Cost-effectiveness and attractiveness
E: Efficient and productive working methods
F: Timely identification of standardization needs
G: Support for bridging the standardization gap

연구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2015년 1월 Review Committee(튀니지 튀니스)에서 영국의 연구반 합병 제안(SG2-SG3, SG9-SG16[3])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관련 연구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 이외에 추가 기고서나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 금번 회의에서는 TSB[4]에서 연구반 구조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연구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TSB 제안 연구반 구조조정(안)은, Infrastructure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SG2 WP2(망관리)+SG11+SG13+SG15[5]을 합병하고, 다시 두 개의 연구반 SG X(Access Infrastructure), SG Y(Core Infrastructure)로 구조조정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이에 SG3(일본), SG13(스위스), SG15 의장(미국)은 반대 의견을 표하였으며 독일은 산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미국은 변화하는 ICT 기술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TSB에서 제시한 구조조정 안을 각 지역그룹과 연구반에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차기 TSAG 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TSB에서 제안한 ITU-T 구조조정 안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이슈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이며, 각 지역그룹 및 연구반별 검토 결과에 따라 차기 TSAG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이다.

2.2 A.1 권고 개정

TSAG은 ITU-T 권고 중 A 시리즈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A.1(ITU-T 연구반 작업방법) 개정 이슈가 가장 논란이 되었다.

먼저 영국은 3.1.2항(기고서의 제출)은 연구반 의장 혹은 작업반(WP, Working Party) 의장이 논

3) SG2(서비스 제공, 통신망 운용), SG3(과금 및 회계원칙), SG9(광대역 케이블 TV), SG16(멀티미디어)
4) TSB(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ITU-T 사무국
5) SG11(신호방식, 시험명세), SG13(미래네트워크), SG15(광전송)

의 촉진을 위해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input TD(Temporary Document)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의 주어가 모두 복수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연구반 의장이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input TD 문서를 제출하여 논의를 촉진시키는 것은, 자신의 연구반에만 해당하는 사항임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이견은 없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TSAG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TD 제출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SG15 의장(미국)은 TSAG은 WTSA 결의에 따라서 TD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은 신규 아이템 제안 시 현재의 문제와 이슈가 무엇이며, 신규 아이템을 통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규 아이템 제안 시 작성하는 A.1 Annex A 템플릿의 항목 수정을 제안하였다[6]. 마지막으로 캐나다와 프랑스는 신규 아이템 제안 시 최소 4개 국가, 4개 멤버(Member States and/or Sector Members and/or Associates)가 지지하고 이를 회의록에 남겨놓는 것을 필수 사항으로 하도록 조건을 변경하고 A.1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Annex A(신규 아이템 제안 템플릿)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 제안에 대해서는 'Justification' 항목 추가 시 기존 항목과의 중복성, 효율성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캐나다/프랑스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지 멤버 수가 권고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과, 제안하는 신규 아이템이 충분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였다. 이에 미국, 캐나다, 가나는 2개 이상의 멤버가 지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절충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1의 개정 이슈는 4월에 e-meeting을 개최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2.3 표준화 전략 그룹 신설

지난 2015년 1월 ITU-T Review Committee 회의(튀니지 튀니스)에서 일본은 ITU-T 표준화 전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SSF(Standardization Strategy Function) 설립을 제안하였고, 2016년 5월 ITU-T Review Committee 회의(스위스 제네바)까지 다음 이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였다.

이견 사항

① 회의 주재 주체: TSB 국장 혹은 ITU 멤버
② SSF 기능 수행 그룹: 별도의 그룹 혹은 TSAG
③ 멤버십: 누구에게나 오픈 혹은 ITU/ITU-T 멤버로 제한

2016년 1월 ITU-T Review Committee 회의(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일본은 SSF의 명칭 및 ToR 등을 변경하여 SPF(Standardization Planning Function)로 재 제안하였으나 유럽, 캐나다, 미국 등의 반대로 TSAG 산하 'Rapporteur Group on Standardization Strategy (RG-SS)'로 TSAG에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견 사항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견 사항 논의 결과

① 회의 주재 주체: TSAG 산하이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② 구조: TSAG 산하 라포처 그룹
③ 멤버십: ITU-T 멤버(현재 규정대로 의장이 외부 전문가 초청 가능)

이에 따라 TSAG에서는 Review Committee의 RG-SS 신설 제안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RG-

6) 'Summary' 항목을 'Summary and Justification'으로 수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 purpose including the problems/issues expected to be resolved and the contents of the Recommendation, thus permitting readers to judge its usefulness for their work'로 변경할 것을 제안

SS(Rapporteur Group on Standardization Strategy)는 신규 라포처 그룹으로 신설하고, 멤버십은 일반 라포처 그룹과 동일하게 ITU-T 멤버십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RG-SS 라포처는 추후 TSAG 매니지먼트 팀, TSB, 연구반 의장 등 관계자들과 컨설팅을 통해 산업계 멤버 중 후보 선정하고 차기 회의에서 라포처를 임명하기로 하였다.

3. 맺음말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ITU연구위원회 WTSA-16 대응준비반을 구성하여 WTSA-16 본 회의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PT WTSA-16 준비그룹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번 TSAG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별 및 지역별로 본격적인 WTSA-16 관련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차기 TSAG 회의에서는 연구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기고서가 다수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1의 신규 아이템 제안 시 지지 국가의 조건이 'supporting members from at least 2 different countries'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고서 제출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WTSA-16 본 회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TSAG 회의는 2016년 7월 18일~22일까지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 **용어 해설** • 웹: http://terms.tta.or.kr • 모바일: http://terms.tta.or.kr/mobile/main.do

도로 교통 관리 시스템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ATMS

지능형 교통 체계(ITS)의 일환으로 정보 수집 장치를 활용하여 교통 정보를 수집한 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같은 매체에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고속도로·국도와 연계되는 도시부 간선도로에도 교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TMS가 도입되었다. ATMS는 도로의 차량 검지기,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가변 전광 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에 수집한 다양한 정보(행사, 교통사고, 소통량 등)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최적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